

음절말 자음탈락에 의한 보상 장모음화 연구^{*, **}

이범진
(원광대학교)

Lee, Bum-Jin. A Study on Compensatory Lengthening with Coda Dele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4), 129-14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mpensatory lengthening with the deletion of Ð [θ or δ] and r within the framework of Moraic Phonology(Hayes, 1989) and CV Phonology(Clements & Keyser, 1983). Vowel lengthening with coda deletion occurs in the following case: a. $V\eta x > \check{V}x$ b. $VnC > \check{V}C$ c. $V\text{Ð} > \check{V}$ or $Vr > \check{V}$. Accounting for compensatory lengthening with coda deletion in a, Hayes(1989: 291-3) posits three moras in primitive Germanic. I posit two moras to solve the problem in b and c described above. In this paper I account for b and c by invoking the notion 'extrasyllabicity'.

Key Words : compensatory lengthening, moraic phonology, coda deletion, primitive germanic, extrasyllabicity

1. 서론

음 변화에 대한 연구는 어떤 시점에서 종적으로 연구하는 역사적인 방법과 횡적으로 연구하는 공시적인 방법이 있다. 고대영어의 경우 공시적인 연구는 SPE(The Sound Pattern of English)에 입각한 Lass & Anderson (1975)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SPE이후 음운이론이 많이 발전하여 근래에는 음운이론에 의한 고대영어의 공시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대영어의 장음(long segment)의 발생과 관련된 음 변화를 조사하여 근래의 음운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고대영어시기에 음절말 자음이 탈락하여 장음화되는 현상 중 $V\eta x > \check{V}x$, $VnC > \check{V}C$, $V\text{Ð} > \check{V}$ 또는 $Vr > \check{V}$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음

* 본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 학술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의 귀중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논문의 잘못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

장자음이 CC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모음이 동일한 자질을 지닌 두 모음의 연쇄 VV로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의 예로, Hayes(1986: 325)가 제시하는 하우스(Hausa)어의 단음화(shortening)현상과 관련된 (2)와 같은 현상을 들 수 있다.

- (2) a. *da:-n-ka* → *danka* 'your son'
 son-of-2m.sg.
 b. *kai-n-ka* → *kanka* 'your(m.sg.) head'
 head-of-2m.sg.
 c. *kyau-n-fuska* → *kyanfuska* 'beauty of face'
 beauty-of-face

하우스어에는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 폐쇄음절에 나타날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조건이 있다. (2)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의 결합에 의해 이 음절구조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장모음은 단음화되고 이중모음의 두 번째 요소는 탈락한다.

장모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으로 표시하는 선형이론은 위에서 언급한 하우스어의 음절구조조건을 아래 (3)처럼 두 가지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 (3)a. * - $\left(\begin{array}{c} V \\ [+long] \end{array} \right) C\$$
 b. * - VVC\$

그러나 장모음을 동일한 두 모음의 연쇄 VV로 나타낸다면, 하우스어 음절구조조건 (3)을 아래처럼 간단히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4) *-VVC\$

또한, 폐쇄음절에 나타나는 경우 장모음은 단음화되고 이중모음의 두 번째 요소는 탈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모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으로 표시하는 선형이론은 아래와 같은 서로 별개의 두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형이론은 음절을 '분절음의 연쇄'로 파악하므로 음절경계를 '분절음 내'에 삽입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장자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자음으로 나타내는 선형이론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1)에 제시한 장자음의 특성을 나타내기란 불가능하다.

- (5) a. $V \rightarrow [-\text{long}] / \text{ ______ } \text{ C\$}$
 b. $V \rightarrow \emptyset / V \text{ ______ } \text{ C\$}$

규칙 (5a)는 (2a)의 예와 (5b)는 (2b, c)의 예와 각기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장모음을 동일한 두 모음의 연쇄 VV로 나타낼 경우, (5)의 두 규칙을 아래처럼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 (6) $V \rightarrow \emptyset / V \text{ ______ } \text{ C\$}$

이처럼 장모음을 [+long]이라는 자질로 표시하면, 음절구조조건을 간단히 나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조건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발생하는 음운현상을 보다 간결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선형이론의 두 번째 장음표시 방법 즉, 장음을 동일한 두 분절음의 연쇄로 표시하는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음이든 모음이든 장음을 [+long]이라는 자질을 지닌 단음으로 표시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장음을 동일한 두 분절음의 연쇄로 표시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음을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역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장모음을 살펴보자. Hayes(1986a: 325)에 따르면, 장모음을 모음 연쇄(VV)로 나타낼 때, 리투아니아어(Lithuanian)에서도 장자음에서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언어에서 모음 /e/와 /e:/는 모음 /u/나 전이음(glide) /w/ 앞에서 각기 /o/와 /o:/로 후설모음화(backing)된다. Hayes(1986: 325)는 이 현상과 관련된 규칙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7) 리투아니아어의 후설모음화(Lithuanian Backing)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high} \end{array} \right] \rightarrow [+back] / \text{ ______ }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back} \\ +\text{high} \end{array} \right]$$

장모음을 VV로 나타내는 선형이론에서는 예를 들어 /e:u/가 /eeu/로 해석되므로, 여기에 규칙 (7)이 적용되면 [o:u]가 아니라 옳지 않은 형태인 *[eou]가 도출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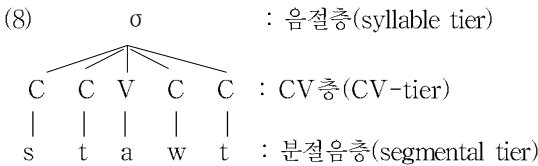
선형이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장음을 표시하더라도 장음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

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본고는 고대영어의 장음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선형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CV 음운론을 mora 음운론과 비교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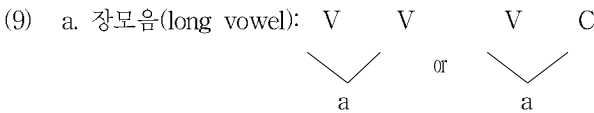
2.2. 자립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의 장음표시

자립분절음운론에 입각하여 음절을 다루는 여러 이론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고대영어의 장음을 다루는데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대표적으로 Clements & Keyser(1983)의 CV-음운론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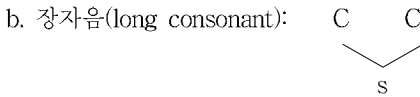
Clements & Keyser(1983: 18)는 *stout*의 음절구조를 아래 (8)처럼 세 층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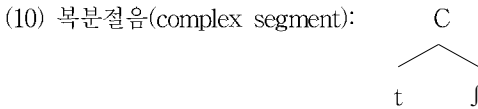
음절구조를 (8)처럼 세 층으로 표시하면, 아래 (9)처럼 하나의 분절음이 CV-층의 두 요소와 연결되거나, (10)처럼 두 개의 분절음이 CV-층의 하나의 요소와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Clements & Keyser, 198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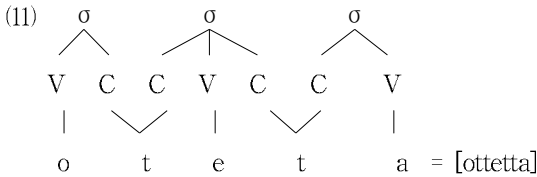
(Clements & Keyser, 1983: 34)



(Clements & Keyser, 1983: 34)

(9)와 같은 구조는 장음을 나타내고, (10)과 같은 구조는 폐찰음이나 전비음화 자음(prenasalized consonant)과 같은 복분절음을 나타낸다. Clements & Keyser(1983: 12)에 따르면, 장모음이 (9a)의 두 형태중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가는 언어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영어의 경우, 장모음은 모음이 CV-층의 VV가 아니라 VC와 연결되어 표시된다(Clements & Keyser, 1983: 32). CV-음운론에서는 이와 같이 CV-층과 분절음층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1:1일 필요가 없다. (9)에서처럼 2:1이거나 (10)에서처럼 1:2일 수도 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CV-음운론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CV-층에는 분절음층의 어떤 요소와도 연결되지 않은 빈자리(empty slo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절음의 탈락과 같은 규칙이 CV-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분절음층에만 적용된다는 자립분절음운론의 특성 때문이다.



(11)에서 볼 수 있듯이 /t/는 CV-층의 CC와 연결되어 있어 마치 두 개의 자음처럼 행동한다. CC의 왼쪽 C는 앞 음절의 말음위치에 있어 앞 음절은 중음절(heavy syllable)이 되고, 오른쪽 C는 다음 음절의 두음위치에 있다. 이처럼, 장음 (9)처럼 나타내면, 장자음이 지나는 첫 번째 특성 (1)에 명시된 장자음이 지나는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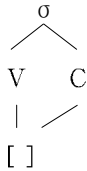
2.3. 보상장음화 규칙 및 장 이중모음 표시

CV-음운론이 보상장음화의 여러 예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립분절음운론이 보상장음화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분절음의 탈락이 CV-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분절음층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자립분절음운론이 선형이론보다 장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립분절음운론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Clement & Keyser(1983: 77)는 보상장음화에 관하여 “The phenomenon of compensatory lengthening is a consequence of spreading.”이라고 말한다. 보

상장음화를 이처럼 전파에 의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Wetzels(1986: 321)가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보상장음화규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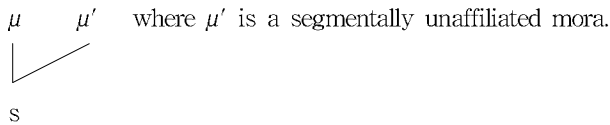
(12) 보상장음화(Compensatory Lengthening)



(12)는 모음 바로 뒤에 오는 자음의 탈락으로 생긴 빈자리 C에 V와 연결되어 있는 분절음을 연결시키는 규칙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Clement & Keyser(1983)의 CV-음운론을 사용하므로, Wetzels(1986: 321)의 보상장음화규칙 (12)을 채택한다.

다음으로 모라음운론의 보상장음화를 소개한다. Hayes(1989: 262)는 이 규칙을 아래의 (13)같이 표시한다.

(13) 보상장음화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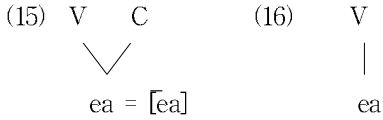
이 모라에는 모음이든 자음이든 두음을 제외한 모든 분절음이 모라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음이든 모음이든 탈락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보상장음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Kim(1984: 142)은 두운시(alliterative poetry)의 율독(scansion)을 근거로 고대영어의 이중모음이 단모음과 동일하다고 아래 (14)와 같이 말하고 있다.

- (14) A so-called 'short' diphthong <æa> is scanned as equivalent to a short simple vowel <a>.... while a so-called 'long' diphthong <æa> is scanned as equivalent to a long vowel <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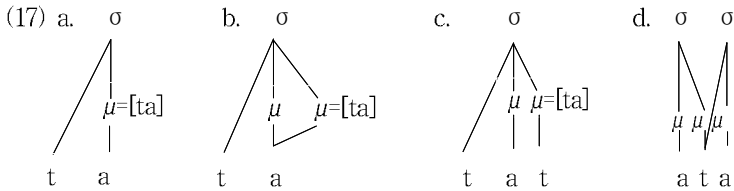
위와 같은 근거들로 미루어볼 때 고대영어의 이중모음에는 음량의 차이가 있

으며 단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운분절음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이중모음은 다음 (15)와 같이 나타내고, 고대영어의 단이중모음은 (16)처럼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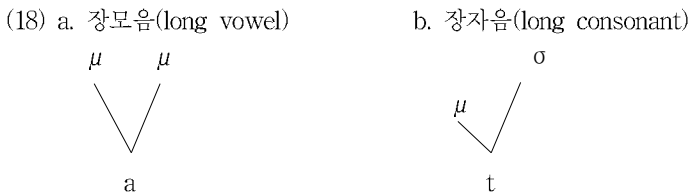


2.4. 모라 음운론의 장음표시

2.2에서 살펴보았듯이 CV-음운론이 장음의 여러 특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음길이와 관련된 현상들을 간결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Hayes(1989: 254, 259)는 CV-층을 모라층으로 대체하여 음절구조를 아래 (17)처럼 표시한다.



모라 음운론에서는 모라가 음절중량과 음장을 나타낸다. 경음절은 (17a)처럼 하나의 모라를 지니고, 중음절은 (17b, c)처럼 두 개의 모라를 지닌다. 단음절은 (17a, c, d)에서처럼 하나의 모라와 연결되어 있고, 장모음은 (17b)에서처럼 두 개의 모라와 연결되어 있다. 단자음(short consonant)은 (17c)에서처럼 음절마다든 모라든 하나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장자음은 (17d)에서처럼 모라와 교점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 편의상 장모음과 장자음을 다시 나타내면 아래 (18)과 같다.



(18b)에서처럼 장자음이 서로 다른 층의 두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음절화 과정에서 두음의 자음은 음절교점에 연결되고 말음의 자음은 모라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Hayes(1989)는 두음의 자음이 모라와 전혀 무관하다고 가정한다.

Hayes(1989)의 모라 음운론에서는 음절구조와 장음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소개하였다. 본고에서는 고대영어의 장음화를 다루면서 Hayes(1989)의 모라 음운론을 사용한다.

2.5. 음절말 자음의 탈락

고대영어의 장모음 발생과 관련된 음변화 중 음절말 자음의 탈락에 의한 보상 장음화가 대부분이다.

2.5.1. 비음의 탈락($V\eta x > \bar{V}x$)

음절말 자음의 탈락에 의한 보상장음화와 관련하여 맨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원시 게르만어에서 발생한 $V\eta x > \bar{V}x$ 이다. 이와 관련된 예는 아래 (19)와 같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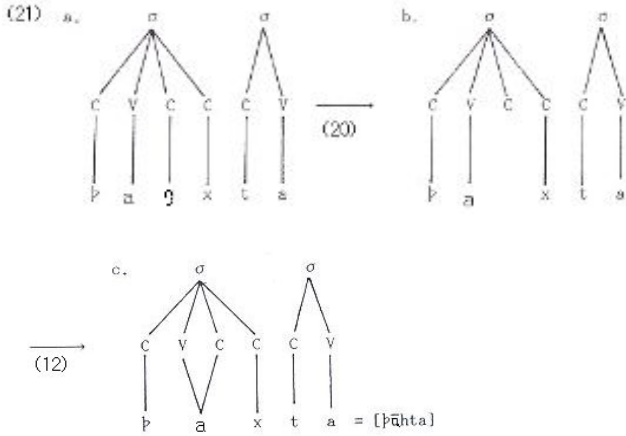
- (19) PGmc. **þaʀpxta* I thought > Go. *þāhta*, OS *thāhta*,
OHG *dāhta*, OE *þāhte*
PGmc. **þaʀpxta* it seemed > Go. *þūhta*, OE *þūhte*

(19)와 관련된 η -탈락규칙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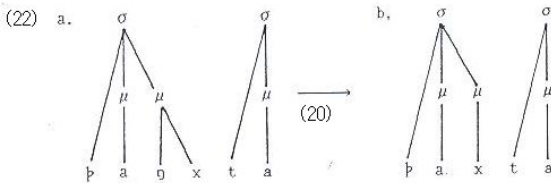
$$(20) \begin{bmatrix} +nasal \\ -ant \\ -cor \end{bmatrix} \rightarrow \emptyset / \begin{bmatrix} V \\ a \text{ high} \\ -a \text{ low} \end{bmatrix} \text{ — } \begin{bmatrix} -son \\ +cont \\ -ant \\ -cor \\ -voice \end{bmatrix}$$

(19)의 예들 중 PGmc. **þaʀpxta* > Gmc. *þāhta* (OE *þohte*) it thought의 도출 과정을 CV 음운론에 의해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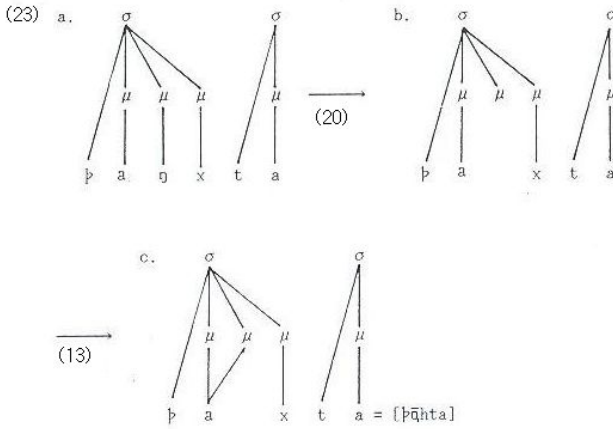
2) Wright & Wright (1954: 26)



η -탈락규칙 (20)은 단지 분절음층에만 적용되므로, (21a)에 이 규칙이 적용되면 (21b)에는 빈자리 C가 남는다. 이 빈자리는 보상장음화규칙 (12)에 의해 모음 u와 연결되어 장모음을 지닌 올바른 표면형 (21c)가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한 음절에 최대 두 개의 모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Hayes(1989: 291-93)에 따르면, 원시 게르만어를 포함한 일부 언어는 한 음절에 세 개의 모라가 나타나는 것을 허용한다. 만일 원시 게르만어에서 한 음절에 최대 두 개의 모라가 허용된다고 가정하면, 아래 (22)의 도출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모라 음운론은 (19)의 보상장음화를 설명할 수 없다.



(22a)에 η -탈락규칙이 적용되더라도 빈 모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보상장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옳지 않은 표면형이 도출된다. 따라서 Hayes(1989: 291)는 원시 게르만어에서는 한 음절에 세 개의 모라가 허용된다고 보고, PGmc. **þayxta* > Gmc. *þāhta* it thought 의 도출과정을 (23)처럼 나타낸다.



(23)에서는 (22)에서와는 달리 η -탈락규칙 (20)이 적용되면 빈 모라가 남게되며, 이 빈 모라는 모라 음운론의 보상장음화규칙 (13)에 의해 모음 a와 연결되어 올바른 표면형이 도출되게 된다.

2.5.2. 복해 게르만어(Vnc > Vc)

원시 게르만어에서 발생한 $V_{\eta}x > Vx$ 와 유사한 음변화로는 복해 게르만어족에서 발생한 비음탈락에 의한 보상장음화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 아래 (24)와 같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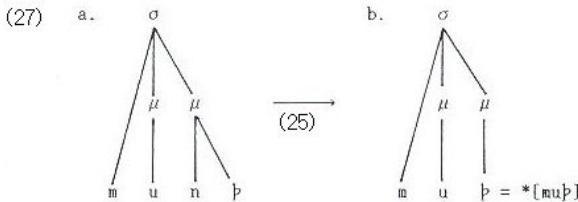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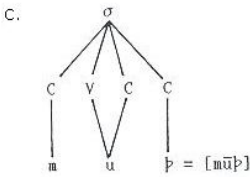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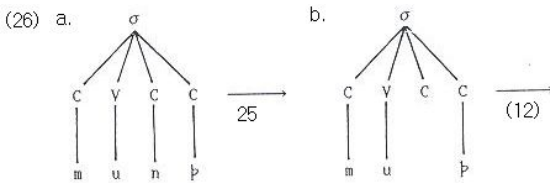
- | | | | | |
|-----------|-------------|---|---------|-------|
| (24) *mun | (Go. mun̄s) | > | OE mū̄b | mouth |
| *fiuf | (Go. fiuf) | > | ff | five |
| *gans | (OHG. gans) | > | gōs | goose |
| *sun̄b | (OHG. sund) | > | sū̄b | south |
| *tan̄b | (OHG. zand) | > | tō̄b | tooth |
| *uns | (OHG. uns) | > | ūs | us |

(24)와 관련된 비음탈락을 규칙으로 나타내면 아래 (25)와 같다.

3) 양선기(1990: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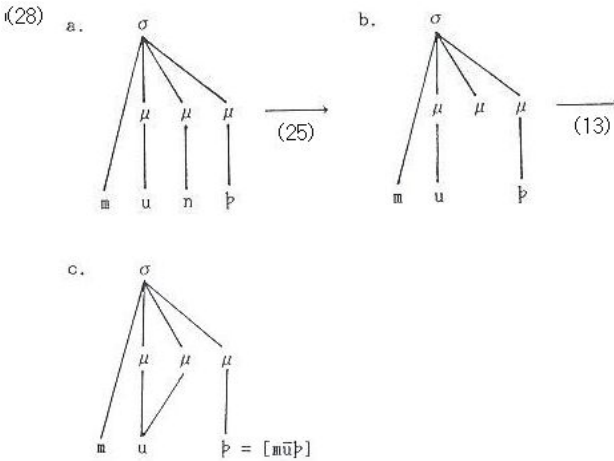
$$(25) \left[\begin{array}{l} +\text{nasal} \\ -\text{ant} \\ \alpha \text{ cor}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left[\begin{array}{l} V \\ \beta \text{ high} \\ -\beta \text{ low} \end{array} \right] \text{ — } \left[\begin{array}{l} -\text{son} \\ +\text{cont} \\ +\text{ant} \\ -\text{voice} \\ \alpha \text{ cor} \end{array} \right]$$

(24)의 예들 중 **mun̄b* > OE *mūb* 'mouth'의 도출과정을 CV 음운론과 모라 음운론에 의해 나타내면 각기 (26) 및 (27)과 같다.



CV 음운론의 도출과정 (26)은 위에서 언급한 원시게르만어의 η -탈락에 의한 보상장음화의 도출과정 (22)와 동일하다. (26)에서 η -탈락에 의해 생긴 빈자리 C는 보상장음화규칙에 의해 모음 u와 연결되면 장모음을 지닌 올바른 표면형이 도출된다. 반면 모라 음운론의 도출과정 (27)에서는 n이 탈락하여도 빈 모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모음을 지니지 않은 옳지 않은 표면형 **mub*가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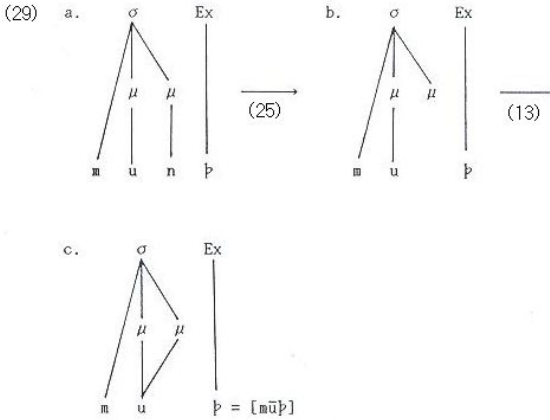
모라 음운론의 도출과정 (27)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방법은 원시 게르만어에서처럼 북해 게르만어족에서도 한 음절에 세 개의 모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아래 (28)의 도출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24)의 예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게르만어에서 한 음절에 최대 세 개의 모라가 허용된다고 가정하면, (24)의 예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나 소위 서게르만어 장음화(West Germanic gemination)현상을 세 개의 모라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⁴⁾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말에 자음군이 나타날 때 어말의 마지막 자음을 음절외적(extrasyllabic)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⁵⁾ 음절말의 자음을 편의상 Ex로 표시한 교점에 연결하여 나타내면, *mun̥p̥ > OE m̥u̯p̥ 'mouth'의 도출과정을 모라 이론에 의해 아래처럼 나타낼 수 있다.

4) 양선기(1990: 249-258) 참조

5) Goldsmith(1990: 107)는 음절외적성(extrasyllabicity)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Many languages (such as English) allow extra segmental material to appear at the end of a word that could not be syllabif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that appear to hold word-internally. This extra material at the end has been called a termination, an appendix, or has been said to be extrasyllabic."



모라 음운론의 도출과정 (27)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대영어의 장음화를 다루는데 있어 음절의 마지막 자음을 음절외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2.5.3. 음절말 자음(*ð*와 *r*)의 탈락(Vð > V와 Vr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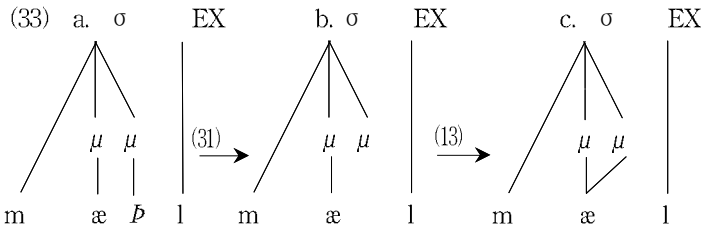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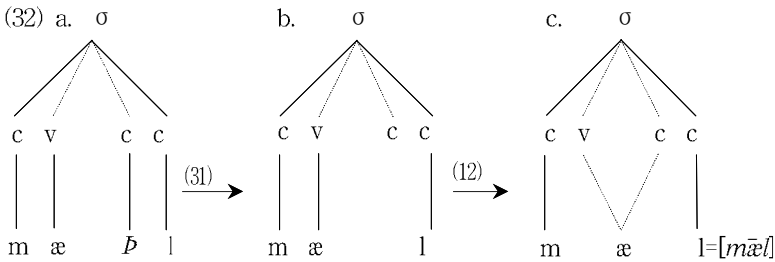
보상장음화를 유발하는 음절말 자음의 탈락으로는 *ð*-탈락과 *r*-탈락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예는 위에서 제시한 다른 분절음 탈락의 예보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Campbell(1959)은 *ð*-탈락과 *r*-탈락이 보상장음화를 유발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30) a. An alternative development with entire loss of *ð* and compensatory lengthening of the preceding vowel appears in *māel*, *māelan* (beside *mæðl*), and *stāel* 'place', *stāelan* 'impute'. This development seems not to be peculiar to a dialect. (p. 171)
- b. Between vowel and consonant *r* usually remains, e.g. *hord*,...; but it is lost with compensatory lengthening in OE *hād*- 'hair...', *mēd* 'reward' (beside *meord*), *twīn* 'linen' (cf. Ger. *zwirn*). (p. 166)

(30a)에서 언급된 *mæðl* > *māel*로 된 현상을 살펴보자. 우선 *ð*-탈락 규칙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1) \quad \bar{b} \rightarrow \emptyset / \left[\begin{array}{c} V \\ -back \end{array} \right] \text{ — } \left[\begin{array}{c} +son \\ +ant \\ +cor \end{array} \right]$$

그러면 *mæbl* > *mǣl* 도출과정을 CV 음운론과 모라 음운론으로 나타내면 아래 (32),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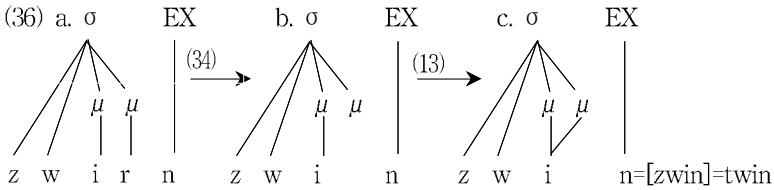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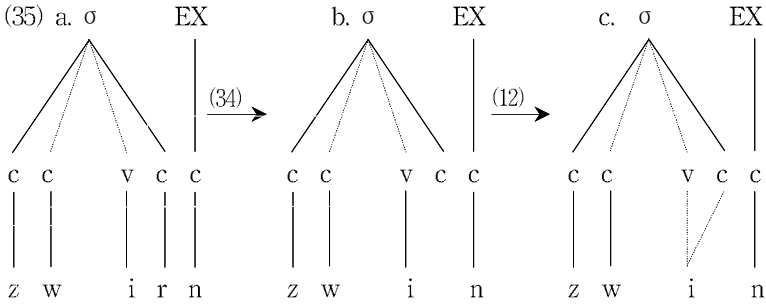
위 (33a)에 *b̄*-탈락규칙 (31)을 적용하면 (33b)처럼 빈 모라가 생긴다. 여기에 보상장음화 규칙 (13)이 적용되면 (33c)에서처럼 빈 모라는 모음 *æ*에 연결되어 올바른 형태인 *mǣl*이 도출된다.

(31b)에서 Ger. *zwirn* > OE *twīrn*⁶⁾으로 변하는 현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r*-탈락규칙을 나타내면 (34)와 같다.

$$(34) \quad r \rightarrow \emptyset / \left[\begin{array}{c} V \\ -back \end{array} \right] \text{ — } \left[\begin{array}{c} +son \\ +ant \\ +nasal \end{array} \right]$$

6) 고지독어 음변화(High German Sound Shift)에 의하면 고지 독어에서 z는 저지독어에서 t로 변함. ex, zehn : ten, Zeit : tide 등

Ger. *zwin* > OE *twin* 'linen' 도출과정을 CV 음운론과 모라 음운론으로 나타내면 다음 (35), (36)과 같다.



위 (36a)에서 r-탈락규칙 (34)를 적용하면 (36b)에서처럼 빈 모라가 생기고 여기에 보상장음화규칙을 적용하면 (36c)에서처럼 빈 모라는 모음 i와 연결되어 바른 형태인 *zwin*, 즉 > OE *twin*이 된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고대영어 장모음 등이 발달하게 된 과정을 보면 보상장음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인접한 자음이 탈락하고 그 빈자리에 선행하는 모음이 장음화 되거나 이중모음화 되는 음변화이다. 원시 게르만어에서 발생한 $V\eta x > \bar{V}x$, 북게르만어에서 일어난 $VnC > \bar{V}n$, 고대영어에서 일어난 $V\bar{b} > \bar{V}$ 또는 $Vr > \bar{V}$ 등과 관련하여 탈락규칙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CV 음운론과 모라 음운론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원시 게르만어에서는 3개의 모라를 허용하지만 북해 게르만어나 고대영어에서는 한 음절 내에 모라를 2개만 인정하고 어말의 자음을 음절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Campbell, A. (1959). *Old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Clements, G. N. and S. J. Keyser. (1983). *CV Phonology: A Generative Theory of the Syllabl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Goldsmith, J. (1990).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Oxford: Blackwell.
- Hayes, B. (1986a). "Inalterability in CV Phonology." *Language* 62: 321-51.
- _____. (1989). "Compensatory Lengthening in Moraic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20:253-306.
- Hyman, L.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im, S. (1973). Long Consonants in Old English, *Linguistics* 102:83-90.
- _____. (1984). Some Old English Phonological Processes: A Nonlinear Analysis. *Language Research* 20:139-62.
- Lass, R. and J. Anderson. (1975). *Old English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zer, E. (1986) "An Autosegmental Analysis of Compensatory Lengthening in Turkish," In Wetzels & Sezer, eds.: 245-246.
- Wetzels, L. (1986). "Phonological Timing in Ancient Greek," In Wetzels & Sezer, eds.: 320-322.
- Wetzels, L. & E. Sezer, eds. (1986). *Studies in Compensatory Lengthening*. Dordrecht : Foris.
- Wright, J. & E. Wright. (1954). *Old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 Press.
- 양선기. (1990). 모라이론에 의한 영어 보상 장모음화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이 범 진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영중학부

전화: (063) 850-6153, 016-384-8324

이메일: bjlee@wonkwang.ac.kr

Received: 30 September, 2008

Revised: 30 November, 2008

Accepted: 5 December, 2008